

## 내가본 뉴질랜드

연세의대 간호학과 남정준

뉴질랜드는 남위  $34^{\circ}$ 와  $37^{\circ}$  사이에 놓여있는 남반구의 두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나라로서 온대에 속한 기후를 갖고 있는 곳이다. 한국과는 정반대의 계절을 갖고 있다는것이 다른 데에서 거의 같은 위치에 있는 것이다. 물론 온대에 속한 기후를 가졌다고는 하지만 사철 푸른 풀이 자라고 있는 상춘의 나라이기도 하다. 흔히들 지상의 천국이라고 불러오는 이곳은 14세기 중엽에 남태평양 일대에 퍼져 살고 있던 Polynesian인 Maori족이 정착해서 살던 곳으로 1769년에 영국인 총에 Captain cook이라는 분에 의해 발견된 곳이다.

겨울에도 눈을 볼수없고 사철 푸른 풀이 자라고 있어서 겨울에도 소나 앙들을 들에 놓아 기르며 가정집 정원에서는 일꾼을 두고 뜻을 피우는 이상적인 기후를 갖고 있다.

이 나라의 인구는 약 260만으로서 그중의 90%가 영국의 후손들이고 그 외 화란인, 블란서인, 독일인 그리고 소수의 중국인들이 살고 있으며 그나마지는 원래의 정착민이었던 Maori족들이다. 이중 Maori족들은 남태평양 일대에 퍼져 살고 있던 Po-

lynesian으로서 황갈색의 피부와 체격이 큰것이 특징이다. 지금은 European과 많이 섞여 순수한 이들 Polynesian은 찾기 힘들 정도이다.

언어는 영어를 쓰고 있으며 일부의 Maori들이 Maori어를 쓰고 있다. 문화정도는 상당히 높으나 인구의 90%가 영국의 후손인 만큼 영국의 문화를 그대로 이식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것 같다. 국토 전반의 개발은 눈부신것이었고 그들 조상들의 개척의 힘이 얼마나 컸다는것은 감탄할만한 사실이다. 물론 노동능력의 100%를 이용하고 있다는 이나라는 날마다 상관없이 능력에 따라 각 분야에서 일할 수 있을뿐만 아니라 그 보수도 상당해서 전반적으로 생활수준이 높다. 직장에서 60~70세의 노인들이 일하는것을 흔히 볼수있을뿐만 아니라 직장을 구한다는 문제는 자기능력만 있으면 하나도 어려움이 없는곳이기도 하다. 그래서인지 인구중 37%인 91만이 산업에 종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나라의 일년 수확고가 7억4천9백만(파운드), 미화로 22억불이라고 하며 주로 Butter, 양털, 양고기 등을 수출하는데 양털의 수출은

세계 제2위라고 하며 양의 수만해도 4천9백만 마리로서 세계의 3위라고 한다. 이와같이 수입이 많고 보니 생활수준은 자연히 높을수밖에 없는 것이다.

국민성을 본다면 친절하고 부지런하며 정직하다. 외국인이라고 해서 더 친절하게 해준다고는 해도 정말 그렇게 친절할수가없다. Bus에서나 길에서나 혼자 다닐때라든가 혹은 상점에서 물건을 살때 아무런 걱정을 할필요가 없을정도로 친절하게 해준다. 간혹 시풀질을 달리는 Bus 속에서 운전사와 갈을가던 학생 또는 마을의 어린이들 사이에는 손을들어 혼들여 보이는 흐뭇한 인사가 오고간다. 그럴때마다 이들이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는 것을 엿볼 수 있었다. 조금 큰도시에서 멀어진 적은 도시에서는 날녀노소가 자전거를 이용하는 것을 많이 보았다. 특히 인상적인것은 머리가 하얀 할머니가 자전거타고 다니는 모습과 국민학교 학생남녀들이 짧은다리로 곧잘 자전거 바퀴를 훔치며 친구들과 학교에 오고 가는 모습은 정말 부러운 것이었다. 물론 이들은 큰집에서 자전거를 타는 것을 무서워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운전사들이 이들을 사랑하고 아끼기 때문에 꼭 멈추어서서 먼저 지나가게 해주기 때문이다.

이 나라 사람들이 정직하다는 것은 주로 상점에서의 일들을 미루어하는 말이다. 처음 외국에서 들어온 손님

들이 새로운 화폐단위인 파운드 계산에 익숙하지 못해도 절대 속이지 않기 때문이다. 잔돈을 받을때 그냥주는것이 아니라 물건값부터 계산해서 손님이 낸돈의 전액이 될때까지를 거꾸로 계산을해서 손에 넣어준다. 또 손님이 찾는 물건이 없으면 다른집 상점이름과 무슨거리에 있다는것까지 일러주거나 적어서까지 주며 그집에 가서 사도록 해준다.

이들의 종교를 살펴보면 국민의 70% 이상이 적어도 4가지의 종파에 속해있는데 그것은 Church of England, 장로교, 감리교, 캐도릭이다. 일요일이면 성장을하고 교회에 들간다. 이들은 다른 종파들간에도 항상 서로 사랑하고 있다는 점을 발견했다. 그 한예로 Youth of Christ라는 회합이 한달에 한번씩 있어 각 종파에서 같이 모여 예배를 보는 것을 보았다.

이 나라의 교육편을 본다면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는다. 그 이유는 15歳까지는 의무교육이며 19歳까지는 자기가 원하면 무료로 교육을 받을수있기 때문이다. 단 3세 내지 5歳의 아동들이 무료로 유치원을 다닐수 있으며 만 5세가 되면 국민학교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것이 6년이고 그후에 2년간의 Intermediate School이 있고 이를 마치면 4년간의 고등학교 또는 2년간의 기술학교를 다닐수 있게되어있다. 그런데 이 나라에서는 대학 진학률이 몹

씨 낫다. 물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도취직을 얼마던지 할 수 있을뿐만 아니라 실지 사회에 나와서 이용할 수 있도록 고등학교에서 교육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래서인지 대학교라는 이름을 가진 학교가 전국에 수를 헤아릴 정도이다.

다음에는 사회보장제도로서 아마도 세계의 2, 3위가 될정도로 발달된 나라라고 한다. 예를들어 어린이 양육비, 과부, 고아, 병자, 등에게 국가에서 보조가 나오고 있으며 병원치료비며 약품을 무료로 해주는가 하면 양로비도 나와서 양로원, 고아원등이 전부 무료이다. 그중에서 인상적이었던것은 정신박약인을 수용하고 있는 *Childrens home*이었다. 여기에는 만 2세이상의 정신 박약아들을 특수교육을 하기위해 수용하고 있는데 이 곳에서 자라났다는 15~20세 가량의 Mongol 처녀를 볼 수 있었다는 점이다. 그곳식당에서 간단한 심부름을 하고 있다는 그는 분명히 국가의 혜택을 많이 보고 있다고 생각되었다. 또 다른 기회에 양로원에 가 볼수 있었는데 거의가 90세 이상의 노인들이 많았으며 전연 의사표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이도 많았다. 이와같이 장수하는 노인들은 양로원뿐만 아니라 병원에서 가정에서 국가의 보조로 설설치않은 여생을 보내고 있는것을 보았다.

다음으로는 병원 System인데 거의 전부의 병원이 국립 또는 공립으

로 되어 있어서 한도시와 그 지방의 병원들은 하나의 Hospital Board 밑에 들어가게 되어있다. 물론 이들각 병원은 일반병원 또는 특수병원으로서 운영되고 있으며 전부가 국민에게 무료봉사를 하고있다.

끝으로 간호사업을 살펴보면 첫째 정규간호학교가 있어서 만 17세 이상의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3년 6개월의 교육을 받게된다. 이 정규간호학교는 아직도 병원 부속간호학교로서 졸업시에는 병원 Board시험과 R.N. 시험에 각각 합격을 해야 한다. 두째로 18개월의 *Maternity Training Course*가 있어서 같은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졸업후 산과 병원에서만 일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는 것이었다. 세째로는 6개월간의 *Midwifery Course*가 있는데 이것은 정규간호학교를 졸업한자로서 졸업후 산과병원에 6개월이상 근무한 사람에게 이 Course를 할 자격이 있고 끝마치면 조산원 면허를 받을 수 있다. 네째로는 2년제의 *Karitane Nursing*으로 *Baby and Premature Care*만을 교육받고 각병원의 *Nursery*에서 일할수 있는 자격을 받는다. 다섯째로 4개월의 *Plunket Nursing*이 있는데 이는 정규간호학교를 나오고 산과에 다년간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모자보건을 할수있는 특수한 Course이다. 이 *Plunket Nursing*는 현대의 P.H. Nursing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Volunteer Worker들의 구성단체로서 주로 모자보건을 맡고 있는데 이들은 Clinic에서 유아전장지도와 학동기전 아동들의 정규적인 친찰을하고 있으며 가정방문도 하고 있다. 여섯째로 Distric Nursing으로서 주로 입원했던 환자들이 퇴원한후에 병원에서 받던 치료와 간호를 계속 받을 수 있게 해주는 즉 가정간호라고 하는 것이다. 이들이 지방에서 일하게 될때는 Plunket Nursing도 겸해서 하고 있는것을 보았는데 그 활동이 여간 활발하지 않다. 끝으로 P.H. Nursing인에 있는 국영으로 주로 T.B.와 Maori 아동의 전장지도와 Plunket Nursing, Distric Nursing을 겸하고 있어서 Plunket Nurse, Distric Nurse와 P.H. Nurse의 상호 협조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것을 보았다.

여기에 병원간호를 간단히 소개한다면 뉴질랜드의 병원간호는 꼭 조직적이라고 할수있겠다. 무엇보다도 일하기에 편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간호교육 자체가 이론

과 실습이 병행하도록 가르치고 있거니와 실지 임상에서 자기가 맡은 책임과 직분에 따라 일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예를들면 Matron, Assistant Matron, Tutor Sister, Sister, Staff Nurse, Karitane Nurse, Maternitynurse, Student Nurse, Maternity Trainee, Nurse Aid, Hospital Aid, Hospital Assistant, Maid, Orderly 등의 엄격한 구분에 따라 자기의 책임을 수행할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중에서 몇가지 기억에 남는 것들은 길을잘때 선후를 가리는 일이라든지, 식사시간에 걸때 차려자세로 서서 Excuse를 구하는 일은 예의도 되거나와 일의 순서에 많은 도움을 주기도 했다.

이들과 같이 일하는동안 여러가지로 배운것도 많지만 그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힘껏 일하여 자기의 생을 가치있게 하는것과 동시에 남을 도와주고 사랑하며 나아가서는 세계 인류의 행복을 가져오게 해보겠다는 굳은 신념들을 갖고 있다는 점이었다.

## 육아와 간호

홍우순역

값 <일반가 300원  
학생가 200원